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215-229  
<https://doi.org/10.29212/mh.2020.115.2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갈등

정형아 저,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김지훈\*

## 1. 변동하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

현재 동아시아를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는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된 냉전체제는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무너졌다. 중국은 개혁 개방 40여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 속에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

\*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 사회의 위상 강화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먹고 자는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 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샤오강(小康)사회를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꿈”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1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주석은 지난 70년간 중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당과 군,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시진핑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평화 통일과 중국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등의 연설을 하였다. 이 날 열병식에는 중국인민해방군 1만 5,000명의 장병과 군용기 160여 대, 군사 장비 580대가 동원되었다.

중국은 열병식에서 DF-100 육상 공격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DF-17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JL-2 취랑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DF-41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 세계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J-20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폭격기 등을 공개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첨단 무기를 과시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과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외국 인사가 참석했지만 201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기념식에는 해외의 국가원수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대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외교적으로는 도광양晦(韜光養晦)로 미중 우호 관계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 40여 년을 거치면서 대내외 정책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8년부터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 속에서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군사적으로도 인민해방군은 과거의 방어를 위주로 한 국방전략에서 적극적인 방어 군사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와 화웨이 멩완저우 사건 등을 통해서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미중무역 분쟁은 2019년 말 1단계 합의를 하였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의 확산, 홍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미중관계는 과거의 협력에서 대립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무역과 경제, 과학기술에서 금융과 군사, 이념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형아선생님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은 현재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국제질서가 동아시아에서 구축되는 과정을 중소갈등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타이완 국사관과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아카이브 등에 소장되어 있는 1차 사료들을 이용하여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한국전쟁시기까지 중국과 소련, 미국 등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모두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동맹의 성립과 갈등의 맹아’에서는 1941년부터 1945년 「중소우호동맹조약」 체결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2부 ‘중국 동북지역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에서는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동북지역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제3부 ‘유엔에서의 중·미·소 대립’에서는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유엔에서 중국과 미국, 소련의 대립을 서술하고 있다.

## 2.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갈등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의 제1부는 1920년대부터 1945년 8월 「중소우호동맹조약」 체결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1937년 7.7사변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을 지원해 준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소련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1941년 일본과 「소일중립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중국 원조를 중단하였고, 중소관계는 멀어졌다. 이후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동남아시아 침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동맹체제에 중국과 소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은 동맹관계를 지속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맹체제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중국의 국가적 위상은 크게 높아져서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강대국의 일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국가적 위상은 당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이외에는 동맹국으로 선택할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국민

당과 공산당과의 대립 등 내부적 분열에 있다고 보고 국공문제에 개입하였다. 「알타협정」에서 미국은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참전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로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없었다.

중국과 소련은 일본의 패배가 확실했던 1945년 8월 14일 「중소 동맹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소련이 국민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공산당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중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동북지역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2부에서는 소련이 「알타협정」에 따라 중국 동북(만주) 지역으로 출병하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하면서 일본 적산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은 갈등을 일으켰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만주를 전쟁 수행을 위한 중공업 중심의 산업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만주 지역의 산업 시설은 중국과 소련 모두에게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었다.

소련은 당시 중국의 공업 중심지였던 만주 지역의 적산을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취급하였다. 반대로 중국은 동북 지역의 산업시설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소련은 중국 동북(만주) 점령지의 적산을 소련으로 반출하였다.

다른 한편 소련군의 철군이 지연되면서 국민정부는 동북 지역을 접수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본군의 무기를 입수한 소련군은 상당수의 장비를 공산당 군대에 인도하였다. 소련군으로부터 일본군의 무기를 인수한 공산당군대의 전투

력은 크게 향상되어 이후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소련이 동맹조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를 공산당군대에 빼앗겼다고 판단했다. 국민정부는 동북지역을 확보할 수 없어서 통일을 실현할 수 없었고 소련의 비협조를 1945년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소련이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제3부에서는 중국이 소련을 유엔에 제소하는 등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중국과 소련,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국공내전에서 점점 궁지에 몰리는 과정에서도 소련이 「중소동맹우호조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소련을 유엔에 제소하였다. 반면에 소련은 1949년 10월 1일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중화민국을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퇴출시키자는 안건을 제출하였다. 당시 미국은 장제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이전한 장제스 국민정부를 타이완이 아직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타이완 지위 미정 등을 구실로 타이완과 분리하려 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미관계백서』를 발표하여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책임을 장제스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부패한 장제스의 국민정부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중국 대륙을 상실하더라도 타이완을 지켜야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장제스를 제외하고 타이완에 정권을 수립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미 제7함대가 타이완 해협으로 이동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을 유엔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미군기가 중국 동북지역을 폭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 책은 ‘알타체제’와 ‘냉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소 관계의 중요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알타체제’의 전개를 1945년 8월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 소련군의 동북(만주) 진주와 적산을 둘러싼 갈등과 소련군 철군, 1949년 소련 제소안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알타체제’ 속에서 중·소 관계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글의 1부에서 서술한 「중소우호동맹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소련이 중국에 대해 요구한 이권을 인정하는 알타비밀협정을 체결하였다. 장제스는 알타비밀협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관계에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4일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은 전후 중·소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조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의 2부에서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의 적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반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합작을 강요하였고, 소련군의 철수시기를 국민정부에 알려주지 않아서 국민정부가 동북지역을 접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책은 소련의 만주 점령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국공내전 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 1945년 8월 「중소우호동맹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국공내전과 함께 악화되었다. 결국 1949년 중국이 유엔에 소련 제소안을 제출하면서 ‘알타체제’ 아래에서 형성된 중국과 소련의 우호동맹은 파국으로 끝나고 한국전쟁으로 돌아

시아에서 ‘냉전’구도가 가시화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중국이 국공내전의 마지막 시기에 왜 소련 제소안을 제출하였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륙을 상실하게 된 장제스는 국제사회의 힘을 빌리기 위해 소련을 제소하였으나 미국은 국민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민정부가 1949년 소련 제소안을 제출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표면화되었고 알타체제가 무너지고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냉전구도로 재편되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이 책은 주로 “알타체제”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비교적 긴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1945년 8월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과 소련군의 동북(만주)진주와 철군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련 제소안이 유엔에 제기된 그 중간에 중국에서 격렬한 국공내전이 전개되었다. 이 연구는 국공내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다만 제2부와 3부 사이에 국공내전이라는 큰 사건이 중소 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소련 제소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할 때 국공내전 시기 중소관계에 대한 서술이 보완된다면 독자들이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관계에서 중국국민당과 소련과의 관계가 중요했지만 중국 공산당과 소련과의 관계 변화도 중소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이 시기 중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보다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동맹과 국가 이익

제2차 세계대전 후기 스탈린의 대중국정책의 중점은 몽골을 중국에서 독립시켜 소련을 방어하기 위한 안전지대로 만들고, 중국 동북지역을 회복하여 태평양 진출을 위한 출구와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944년 12월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여 미국의 보장을 받았다. 스탈린도 전후 소련의 대중국정책을 장제스의 국민당을 지지하고 공산당의 혁명활동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sup>1)</sup>

장제스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알타밀약을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장제스는 중국과 소련의 협상에서 소련이 외몽골의 독립을 주장한 것에 대응하여 동삼성(만주)의 영토, 주권과 행정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중공과 신장 지역 비적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외몽골을 독립을 승인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뤼순(旅順) 군항의 행정관리권이 중국의 주권 아래 소련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공동관리는 할 수 없고, 다롄(大連) 자유항은 각국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행정관리와 영토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sup>2)</sup>

이에 대해 스탈린은 중국에는 국민당이 영도하는 하나의 정부가 되어야 하지만 비국민당 인사들을 정부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신장 지역을 중국정부가 회복하는데 동의했다. 소련의 무기도 중국정부에 공급하고 공산당에 공급하지 않으며 동삼성의 영토, 주권 행정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sup>3)</sup>

1)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3, 49-50쪽.

2) 「蔣主席自重慶致行政院長宋子文指示外蒙獨立須俟我國內真能確實統一時方能考慮并告以所謂國內統一鞏固之要旨電」(1945.7.6), 陳孝意,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三編 戰時外交(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593-594쪽.

3) 陳孝意,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三編 戰時外交(二)』, 臺北, 中國國

그러나 장제스의 이러한 희망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입한 후 중국과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중소우호동맹조약」<sup>4)</sup>을 체결하였다. 중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14일에 체결된 이 「중소우호동맹조약」에 의거하여 「중국 창춘철로에 관한 협정」, 「다렌에 관한 협정」, 「취순항에 관한 협정」 등과 부속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으로 소련은 과거 제정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중국 동북지방에서 상실했던 권리를 회복했다. 이 조약의 기한은 30년이었고 소련정부는 군수품과 기타 물자를 중국 중앙정부인 국민정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외몽골에 대해서는 일본이 패전한 후 외몽골이 국민투표를 하여 독립을 원하면 중국정부가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하였다. 소련은 동삼성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영토에 대한 행정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다렌과 취순항, 중국 창춘철로는 중·소 양국이 공동경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창춘철로국 국장은 소련이 담당하고,<sup>5)</sup> 창춘철로국 국장이 소련인을 다렌항 주임으로 임명하며,<sup>6)</sup> 취순항 중소군사위원회 위원장도 소련이 담당했다.<sup>7)</sup> 다렌항은 자유항으로 각국에 무역과 해운을 개방하고, 취순항은 소련과 중국이 해군기지로 중·소 양국의 군함과 상선만 공동사용하도록 했다. 소련은 창춘철로와 다렌, 취순

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588쪽-609쪽.

4) 이 조약은 1945년 8월 24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비준되었다. 「友好同盟條約」(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27-1331쪽.

5) 「關於中國長春鐵路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2쪽.

6) 「關於大連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4쪽.

7) 「關於旅順口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6쪽.

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 중국의 관세와 기타 세금을 모두 면제받았다.<sup>8)</sup>

「중소우호동맹조약」은 소련이 과거 제정러시아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누리고 있던 각종 특권들을 인정하였고, 창춘철로, 다렌과 뤼순항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였지만 주요 직책을 소련인들이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1945년 8월 14일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은 평등한 조약이 아니었고 중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다. 결국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소련 모스크바에서 1950년 2월 14일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다시 체결하여 동북지역의 주권을 회수하였다.<sup>9)</sup>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부동항을 상실한 소련은 새로운 부동항을 원했다.

소련은 대일전에 참전하여 중국의 동북지역을 장악하였다. 1945년 7월 11일 스탈린은 국민정부의 송즈원(宋子文)과 회담에서 소련군이 동삼성에 진입한 후 일본이 투항하면 3주일 이내에 철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3개월이면 완전 철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sup>10)</sup>

그러나 소련군은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해를 넘겨서 1946년에 철군하였다. 소련군 철군 이후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동북 지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다 1946년 6월부터 내전을 시작하였다.

8) 「關於中國長春鐵路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3쪽.

9) 1950년 2월 중국은 소련과 모스크바에서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체결로 소련은 창춘철로, 다렌과 뤼순항 등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반환하였다. 栾景河, 「《中苏友好同盟条约》与《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之比较」, 『当代中国史研究』2004 2期, 94-103쪽.

10) 「關於中蘇此次共同對日作戰蘇聯軍隊進入中國東三省后蘇聯軍總司令與中國行政當局關係之協定」(1945.08.14), 北京大學法律系國際法教研室 編, 『中外舊約章彙編』第三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62, 1339쪽.

국공내전시기에도 소련은 중국 국민정부와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련은 동북지역의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적산(敵産)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동북지역의 산업시설을 요구하였다. 소련과 중국 사이의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소련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의 소련 적군이 공산당군대의 활동을 방임할 것으로 보았다.<sup>11)</sup> 반면에 국민정부는 소련과 「중소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민당군대를 만주에 파견하여 소련군으로부터 치안업무 등을 이관받기를 희망했다.<sup>12)</sup> 1945년 9월 초 산하이관 서쪽 지역의 공산당군대는 동북지역에 진입했다. 그러나 9월 14일 동북지역 주둔 소련군은 소련군이 철수하기 전 장제스 군대와 팔로군 모두 동북지역에 진입할 수 없으며 이미 선양(瀋陽), 다롄(大連), 창춘(長春) 등에 도착한 팔로군에 대해서 점령지역에서 철수하도록 하였다.<sup>13)</sup>

그러나 9월 말 미군이 국민당 군대를 도와서 화북과 동북에 국민당군대를 운송하고 미 해군 해병대가 직접 톈진(天津)에 상륙한다는 것을 알게 된 소련은 태도를 바꾸었다.<sup>14)</sup> 소련군은 국민당 부대가 동북 지역의 항구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중국공산당이 동북 지역을 장악하도록 방임했다.

이에 국민정부가 경제협상에서 소련에게 일정한 양보를 하자 11월 소련은 국민정부군이 창춘과 선양에 진입하는 것을 돕고 「중소 우호동맹조약」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하였다. 11월 20일 소련군

11) 「中央關於迅速進入東北控制廣大鄉村和中小城市的指示」(1945.8.29), 中央檔案館編,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5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57쪽.

12)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3, 56쪽.

13)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3, 57쪽.

14) 楊奎松, 『中間地帶的 革命—國際大背景下看中共成功之道』, 山西人民出版社, 2014, 475쪽.

대표는 동북의 대도시에서 중국공산당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소련은 선양, 창춘, 하얼빈 등 3대 도시와 창춘철로 간선을 국민당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sup>15)</sup>

그러나 국민정부와 소련의 관계는 중소경제협력을 둘러싸고 큰 진전이 없었고, 1946년 1월 16일 국민당 기술자 장신푸(張莘夫) 살해사건이 일어나자 중국에서 반소감정이 강화되었다. 미국과 영국도 소련이 중국 동북에서 철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알타비밀 협정 전문을 공개하였다.<sup>16)</sup> 결국, 1946년 3월부터 소련군은 동북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이 철군한 이후 동북지역을 둘러싸고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충돌하였다. 결국, 1946년 6월부터 국공내전이 시작되었고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49년 9월 중국 국민정부는 소련이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위배하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유엔에 제소하였다. 이는 1945년 8월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에 의거한 중국 국민정부와 소련과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을 의미했다. 이 시기 미국은 『중국백서』를 발간하여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실패한 것은 국민당의 무능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국민정부와 선국기에 나섰다. 중국 국민정부도 소련을 유엔에 제소하여 국공내전에서 자신들의 실패 책임을 소련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대표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유엔에서 중화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가운데 어느 정부가 대표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15) 陳雲, 「對滿洲工作的几点意見」(1945.11.30),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陳雲文選(1926-1949)』, 北京, 人民出版社, 1984, 221쪽.

16)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2003, 63쪽.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이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으로 이동시키자 중화인민공화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침략했다고 유엔에 제소하였다. 당시 소련은 중화민국정부의 대표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유엔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의 부결권 사용을 저지하면서 중화민국 정부가 대표권을 유지하여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결의안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타이완 해방”을 위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타이완 방위에 나서면서 전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꿈은 사라졌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을 지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였지만 “타이완 해방”으로 전 중국을 통일하려던 꿈은 무산되었다. 반면에 장제스와 타이완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타이완정책 변경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타이완은 한국전쟁의 최대의 수혜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대표권 변경문제와 한국전쟁 참전 결정, 타이완 문제 등은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도 타이완 문제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70년 전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대립과 봉쇄를 하면서 대립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시기인 1972년 미국 닉슨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회담하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후 중국이 개혁 개방 노선을 추진하면서 미·중 관계는 40여 년 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중관계는 점차 악화되어 전방위적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 그리고 한반도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부터 70년 전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오랫동안 전쟁의 상처 속에서 고통받았다. 한반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거대한 전쟁 속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전쟁은 한반도에서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전 세계에서 수십 개 국이 참여한 국제적 전쟁으로 비화하였다.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의 동아시아와 현재의 국제관계는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중국과 소련의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